

AUTHOR 김영한

TITLE 후기 현대주의와 개혁사상

IN 한국개혁신학회 논문집

vol.3 (1998): 385-401

관의 비평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화란의 상황은 이미 사회보장제도가 완결된 처지에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맥락에서 정부의 부담을 시민사회에 이관하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오늘 우리의 상황은 오히려 정반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완전한 의료보험과 극히 한시적인 실업 급여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국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이 전무한 한국의 현실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소외그룹에 대해서 보다 많은 재정 지출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화란 개신교 사회경제사상의 길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양극단을 피하면서 중간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인데, 오늘날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모든 국민들과 정부정책이 다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원리로만 치우쳐서 인간을 단지 생산 요소로만 보는 맨체스터학파의 인간관을 모체로 한 능력급제가 선호되고, 인간과 사회를 다시 비인간적인 경쟁 관계로만 몰아넣는 시장경제 원리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위세를 떨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기독교 사회사상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후기 현대주의와 개혁사상

김영한(승실대)

### 머리말

다가오는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사조의 흐름은 후기 현대주의로 옮겨가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후기 현대주의의 세 가지 유형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것은 새 이교주의, 해체 신학, 종교다원주의 신학이다. 새 이교주의는 첨단 기술 가운데서 일그러진 현대인의 비인간화된 윤리와 도덕을 가르키며, 해체 신학은 전통신학을 아예 해체해 버리는 현대신학의 자기분해를 주장하며, 종교다원주의 신학은 타종교의 인정 속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포기해 버리는 기독교의 상황을 가르킨다. 필자는 이 세가지 유형의 사상의 특징을 서술하고 개혁사상의 관점에서 비판을 서술하고자 한다.

### I. 새 이교주의의 도전(neo-paganism)

우리는 거대한 문명의 황혼과 몰락의 시기에 살고 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짐승의 제국이 지구의 표면을 이미 휩쓸고 있는 정

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광란의 시대에 살고 있다. 단지 현대과학의 기술적 성공이 기술문명의 위협적 질병을 우리로 부터 감추고 있을 뿐이다.

우주정복의 첨단 기술로써 우리의 시야를 외부로 돌리면서 우리 인류는 우리 지구가 핵무기에 의하여 파멸될 위협에 직면한 것을 잊고 있다. 세계의 복지국가인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칼 헨리 (Carl F. Henry) 교수는 현 미국의 사회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총기로 얼룩진 중심가, 우리 이웃들은 대낮에도 파멸될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밤에는 공포 속에서 자고 있다. 현대 인류는 옛날의 이교지배자가 텔레비전 세트를 통하여 우리의 정신과 가치관을 다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 버리고, 각종 폭력과 불륜으로 얼룩진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안락에 빠지고 있다. 산상수훈의 가치 대신에 물질과 섹스의 무한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자유주의의 미명 아래 공립학교에서의 기독교 교육의 금지는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등지게 하였고, 하나님의 진리, 신적 계시의 실재, 하나님의 뜻의 내용, 그의 구속의 능력에 대하여 무지하게 하였다. 전통적 기독교가 미국사회에서 무너지면서 그 진공은 이교주의에 의하여 매워지고 있다.”

이러한 후기 현대주의의 물결은 전자와 컴퓨터와 첨단 통신을 통하여 우리 한국사회에 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1969년 칼 헨리는 “야만인들이 오고 있다”(The Barbarians Are Coming)란 강연에서 이교주의의 세 가지 징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 전체주의자들(The Totalitarianists, Hitler, Stalin, Mao etc.)이 과학기술을 오용하고 있다. 히틀러는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수백만 유대인을 가스실에서 학살했으며 스탈린은 포로된 매스 매디어를 이용하여 공포의 왕국을 건설했으며 중국은 원자탄 실험에 열중하고 있다.

현금 이들 전체주의자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물려갔으나 전체주의의 잔존 세력들은 중국, 북한, 큐바, 알바니아에서 그 남은 여세를 몰아가고 있다. 둘째, 전통적 권위부정과 사회적 혼란이다. 이성과 설득에 의한 사

회변화의 공인된 수단이 선동과 혁명으로 대체되고 있다. 민주주의 대신에 마키아벨리즘(machiavelism)이 횡행하고 있다. 대학은 사회에 대한 지성적 비판 센터의 기능을 상실하고 사회적 무정부주의의 전초지가 되고 있다. 60년대 서구 및 미국 대학가의 모습이 80년대 한국 대학가에서 재현되었다. 민주적 복수주의 미명아래 공립학교 및 주요 교육기관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학문적 우수성을 자부하면서 객관적 진리를 소홀히 다루고 있으며 궁극적 가치에 대하여 불일치하고 이 세대의 비지성적 추세에 굽복하고 있다.

셋째, 제도적 기독교의 물력이다. 변질된 제도적 기독교가 이교주의에 대한 방파제가 되는 대신 오히려 장벽을 제거하고 영합하고 있다. 현대 기독교는 하나의 사회적 기구로 전락하여 복음을 선포하기 보다는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고 있다. 그리고 새 인간성(a new humanity)을 선포하면서 영적 능력을 몰수 당하고 있다. 제도적 기독교에 실망한 나머지 신자들은 주요교단 교회를 떠나면서 신자들의 감소율은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교인수의 감소 속에서 현대교회는 거대한 세계 교회에 대한 에뮤메니컬기획을 시도하면서 인간화와 사회화 등의 인간 삶의 평면적 문제해결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는 성령에 의한 중생경험 부재, 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부재, 하나님의 형상, 영생에 대한 관심의 부재 속에서 양육되면서 텔레비전 매체와 각종 비디오의 방영을 통하여 정신적으로 이교주의에 물들고 있다.

현대 기독교 강단은 하나님의 계명, 인간의 죄성, 예수의 성육신, 십자가의 대속, 구속은혜 선포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인간주의 선포의 강단이 되고 있다. 교회가 상황윤리를 강조함으로써 신자와 세상인 사이에 선이 애매해지고 있으며 교회다니는 자들(the churchgoers)은 고倫도 교회신자들의 불륜 속에서 살고자 한다. 세속적 풍습을 비판하고 정화해야 하는 교회 안에서 오히려 야만주의(barbarians)가 양육되고 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살후 2: 3-4)

이 야만인, 배교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점령하고 문명의 황혼을 재촉하고 있으며 무능하게 된 교회의 그늘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1988년 헨리는 “새 야만주의”(the new barbarianism)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 새 야만주의는 신과 서구문화의 유대-기독교적 기반에 대한 철저한 인간주의적 거부에서 창궐하고 있으며 서구문화의 유산을 거부하면서 새 이교주의 사고를 포용하고 있다. 이 사고는 다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고정된 진리는 없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궁극적 선이란 없다. 궁극적 의미와 목적이란 없다. 살아 있는 신이란 원시적 환상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성경의 권위가 부정될 뿐만 아니라 설교의 강단도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의 강단이 아니다. 모든 진리는 변하며 역사와 우주의 궁극적 의미와 목적이란 있지 않다는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 기독교는 역사 속의 하나님의 종교에 불과하며 역사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는 신의 활동과 은혜는 부정되고 있다.

둘째, 이 새 이교주의 사고는 신비주의, 각종 요술의 힘, 자연과의 교통, 신비종교를 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대 미국과 유럽사회는 희랍과 로마시대의 이교주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1991년 기준으로 미국내에는 3백만 회교 신자와 6백개 이스람교 사원이 있으며 이슬람 사원은 대부분 큰도시 중심가, 그들 중 많은 것은 대학가 가까이 자리잡고 있다. 전문가에 의하면 2051년 경에는 이슬람교가 유대교를 추월하면서 제2의 종교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안에는 약 3백-5백만 불교신자들이 있다. 로스엔젤스 타임에 의하면 고대 신령주의, 동방종교, 최근의 적극적 사고를 종합한 “뉴 에이지 운동”(a new Age movement)이 교육가 및 전문기술인들에게 파급되고 있으며 약 3천만 미국인들이 환생(reincarnation)을 믿고 있으며 그중 14퍼센트가 영매개 작업에 참여

하고 있다고 한다. 1978년 갤럽 조사(Gallup Poll)에 의하면 1천만 미국인이 동방 신비주의에 관심하고 있으며 9백만명이 영적 치유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돔, 고모라같은 지적 도덕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2천만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

## II. 해체 신학

### 1. 특징

철학의 영역에 있어서 포스트모더니즘을 부르짖고 있는 자들은 프랑스의 사상가, 작 테리다(Jacque Derrida)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이다. 이들은 모던적인 것(the modern)에 대한 총체적인 부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근대사상이 당연시해온 일체의 보고를 문제시한다. 이들은 마르크스와 프로이드로부터 “회의의 해석학”(hermeneutic of suspicion)을 수용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극단화하여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드주의에 대하여도 긍정적 입장을 거부한다.

이들은 근대적 데카르트적 사고가 기초하고 있는 자아의 확실성을 파괴한다. 이러한 해체작업을 신학에 적용시키는 자가 미국의 막 테일러(Mark C. Taylor)이다. 따라서 그는 포스트모더니즘 운동을 파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의 포스트모던 입장은 극단적 포스트모더니즘으로서 독일의 한스 킹(Hans Küng), 미국의 린트벡(George Lindbeck), 과정사상가 존 캉(John Cobb)과 그리핀(David R. Griffin)의 긍정적 포스트모더니즘과 다르다.

킹은 “포스트모던”(postmodern)을 모던(modern)을 극복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것은 모던을 해설적인 의미에서 “지양되어야 하는 패러다임”으로 본다. 여기서 지양이란 첫째, 사회적 착취와 지성적인 미개의 지양이다. 여기서 그는 계몽주의의 비판적 힘을 긍정하고 있다. 둘째, 이성

과 진보의 미신적인 신앙의 부정, 민족주의, 식민주의, 제국주의에 대한 부정이다.셋째, 억압되고 왜소화된 사고의 차원에서 다양하고 개방된 사고를 향하여 열리는 새로운 초월성의 지향이다.

린드백은 포스트모던을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모던(modern)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는 17세기 과학혁명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모든 타당한 지식은 경험에 기초한 체계적 탐구인 과학으로부터만 도출될 수 있다. 둘째, 근대 과학은 메타언어(metalinguage)인 사실언어를 제공하고 인간사유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사실언어만이 참언어라고 보고 성서언어는 제 이의 언어로 되어버렸다.

린드백은 포스트모던을 다음 같이 이해한다. 첫째, 사실언어로서 군림 하던 과학의 진리주장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것은 20세기 물리학에 있어서 미립자의 발견과 더불어 일어났다. 미립자의 발견은 실재자체가 확정할 수 없는 비결정적 성격을 지님을 인정하게 되었다. 둘째, 과학의 언어도 종교적 언어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집단의 관용어이다. 과학도 종교와 마찬가지로 “그 공동체의 살아있는 관행 밖에서는 이해불가능한” 언어이다. 세째, 과학의 문화적 해석모니는 종언되었다. 언어의 다원성이 당연시되는 시대가 포스트모던 시대이다. 포스트모던 시대는 인식론적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이다.

캡과 그리핀(David R. Griffin)은 포스트 모던을 존재론의 재구성으로 특징짓고자 한다. 그는 화이트헤드의 과정사상을 건설적으로 수용하면서 테카르트적 이원론을 거부하고 새로운 존재론을 제시한다. 새 존재론의 통찰은 사물은 유기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관점이다. 그리하여 학문의 분화에 의한 지식의 단편화, 관념론, 유물론적 원자론, 개인주의 등이 모두 테카르트적 이분법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과정사상가들은 근대성이 남기는 유산인 자기 비판정신, 인격에 대한 관심, 인간 자유에 대한 혁신, 탐구의 자유 등을 철저히 보존하고자 한다.

막 테일러는 그의 저서 『오류범함: 포스트모던 비/신학』(Erring : A Postmodern A/theology)에서 하나님, 자아, 신의 창조세계의 확실성, 진

리의 객관성, 선과 악의 구별, 역사의 의미등의 전통적 개념들을 해체시키고 있다.

테일러는 제 1부에서 전통적 신학을 해체하고, 제 2부에서 해체적인 비/신학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부에서 그는 서구 신학적 테두리에 본질적인 네가지 개념에 대한 해체의 함축을 천명한다. 그것은 신, 자아, 역사와 책이다.

제 2부에서 그는 이 개념들에 대하여 해체적인 재공식화를 시도한다. 그는 신을 글(writing)로, 자아를 흔적(trace), 역사를 오류범함(erring), 책을 텍스트(text)로 해석한다.<sup>1)</sup>

제 1부에서 테일러는 현대주의적 종교비판을 시도했던 인본주의적 무신론에서 신의 죽음이 표현되었다고 보고 이 신학적 테두리를 분석한다. 인본주의적 무신론은 신적 창조자의 속성을 인간피조물에게 전위시킴으로써 자아의 이름으로 신을 부인한다. 이러한 전위(轉位)는 고전적 신학의 현대주의적 인간론으로서의 비변증법적인 도착(倒錯)으로 결과된다. 고전적 신학은 지배(dominion)와 통제(mastery)의 사고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자기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기계기술의식의 중심에 있는 유용성과 소비의 원리를 형체화한다. 그리하여 자기도취적(narcissistic)이고 허무주의적(nihilistic)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확인은 결국 자기패배이다.” “역설적으로 신의 죽음은 자아의 사라짐에서 절정을 이룬다.”<sup>2)</sup>

제 2부에서 테일러는 해체적인 비/신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것을 위하여 그는 신의 죽음이 신적인 것의 개념을 재해석하는 길을 준비하는 극단적 기독론과 관련해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비/신학적 관점으로부터 예수는 단어(word)로 나타나고, 단어는 글(writing)로 읽어진다. 여기서 글이란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텍스트가 아니라

1) Mark C. Taylor, *Erring. A Postmodern A/theolog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1984, p. 13.

2) 상계서, 14쪽.

해체적 비판주의에 있어서 발전된 통찰을 얻는다. 그것은 현재/부재와 동일성/차이성의 상호작용(the interplay of presence/absence and identity/difference)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전통적 신학의 대극적 항을 뒤집는다. 테일러는 책이란 모든 존재와 비존재의 비기원적인 기원(the nonoriginal origin)으로 본다.

“모든 것은 단어의 발생적/해체적 작용 내에서 항상 이미 새겨진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된다면 글이란 신적 차원(the divine milieu)으로 읽혀질 수 있다. 이러한 중간 길을 따라서 신의 글이란 반복적으로 단어의 무한한 산종(散種)(the unending dissemination of the word)으로 나타난다”<sup>3)</sup>

## 2. 비판

해체신학은 전통적 서구신학의 논리를 부정하고 해체적 논리 위에서 전통적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다. 해체주의에 의하면 서구신학은 인도 유럽적인 특히 희랍적인 백색신학에 기초된 존재신학적 허구이다. 백색신학란 서구적 언어(인도 유럽족의 언어)의 사고문법을 인류의 보편적 사고로서 간주하는 백인들의 이성주의를 뜻한다. 서구의 신학은 희랍어 문법적 사고를 이성의 사고와 동일시하고 이성만이 형이상학을 건축할 수 있다는 백색신학의 허구 위에 건립된 것이다. 백색신학란 희랍인들이 만들어 낸 현존의 형이상학과 존재신학의 논리를 인류의 보편적 사고로 보는 것이다.<sup>4)</sup>

테리다에 의하면 백색신학가 형이상학적으로 재현된 최초의 모습이 플라톤의 아데아 철학이다.

해체주의가 이러한 이성주의 전통을 부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개혁신학은 하나의 공통점을 찾는다. 개혁신학도 인간이성을 절대화하는 서구

3) 상계서, 15쪽.

4) 김형호, 『테리다의 해체철학』, 민음사, 1993, 294.

의 이성주의 전통에 대하여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체주의가 이성과 논리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서구의 정신사적 전통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데 대하여 개혁신학은 이성과 논리에 그 적합한 권리를 인정하는 점에 있어서 해체주의와 다르다. 해체주의는 전통적 논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는 더 이상 재래적인 의미에서 신학이 아니다. 그것은 비/신학(a/theology)이다. 이러한 비/신학은 전통적 신학을 해체하기 때문에 해체신학은 비단 개혁신학뿐만 아니라 자유주의든 보수주의든 모든 서구신학의 체계를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신학(非/神學)은 더 이상 객관적인 신의 계시현실을 기술하는 학문이 아니라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신의 의미를 텍스트 맥락에서 밝히는 문학의 한 장르가 되고 있다.

### 첫째, 그것은 신판을 해체한다.

테일러는 나체처럼 신의 죽음을 선언함으로써 초월적이고 영원 자존하는 신을 인간적인 표상으로 환원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는 초월적 인격자 대신에 신의 글을 선언함으로써 성경적 인격신을 문자학 속에서 부동하는 의미현상으로 환원시키고 있다.

신적인 창조란 개념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단어의 무한한 놀이 속에서 의미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이다. 그것은 단지 해체적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지속적 창조”(continual creation)이다. 따라서 기독교적 창조론은 더 이상 우주론적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텍스트의 맥락에서 일어나는 해체론적 창조론이 되어버린다.

### 둘째, 자아를 해체한다.

해체주의 사고에 의하면 자아란 텍스트의 한 因子에 불과하다. 독자나 관객도 역시 텍스트 앞에서 자아의 자의식으로 자리잡기가 불가능하다. 자아란 저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텍스트 안에서 모든 인자들이 기계적으로 인연을 따라 관계의 매듭짓기를 반복한다. 여기서 다른 요인의 영향

을 받지 않고 고유하게 독자적으로 자기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주관이나 자아란 없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주관이나 자아란 이미 다양한 주관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에 반하여 개혁신학이 중언하는 진정한 신은 인간 자아를 광란 속에서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인간의 상실한 자아를 성령을 통하여 회복하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여기서 자아는 사라지지 않고 자아는 새롭게 창조된다. 해체주의자들은 자아의 존재까지 거부함으로써 너무 극단적으로 나아갔다.

자아와 주관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상은 허무주의와 극단한 상대주의에 빠져 버리고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된다.

#### 셋째, 역사를 해체한다.

해체주의 사고가 주장하는 세계에서는 창조의 시작과 종말의 목적도 없고 연결고리를 연쇄적으로 맺고 놀고 도는 유희만이 있다. 신 죽음의 선연과 이 세계의 절대적 궁정만이 있다. 이 세계는 되어감이다. 세계는 영겁회귀 속에서 같은 것이 다른 것이 되고, 다른 것이 같은 것이 되는 반복의 차연(差延)이다. 진정한 파라다이스는 우리가 상실한 것이 아니라 파라다이스의 최종적 상실이 다시 얻은 파라다이스이다.

여기서 해체신학은 극단한 허무주의와 허무 극치의 고통을 동반한 즐거움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철저한 피상성(superficiality)을 선포하고 있다. 극단한 피상성이란 오로지 생성소멸하는 우주의 놀이에 짜여져 논다는 니체적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다.

해체신학은 신의 죽음, 자아의 사라짐, 역사의 종말이 광란의 은총의 실현임을 보여 주려한다.<sup>5)</sup> 광란적 은총은 신이 죽은 시간과 세계 속에서 세계를 사랑하는 길을 개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은총은 진정한 은총이 아

니다. 이것은 이미 니체가 갈파한 신을 상실한 인간이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단하는 숙명적 체념에 불과할 뿐이다.

#### 넷째, 정경을 부정한다.

비/신학은 텍스트의 객관적 의미를 부정함으로써 극단한 의미 무정부주의에 빠지고 있다. 비/신학은 “의미의 놀이는 무제한적이다”<sup>6)</sup>고 말함으로써 의미의 무한한 놀이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비/신학은 문자의 고정된 의미성을 부정하는 회의주의에 빠지고 있다. 해체주의는 진리를 텍스트의 상호관계성으로 해소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고정적인 진리는 없고 끊임없는 텍스트의 상대적, 무한한 해석만이 있다고 한다.

텍스트의 의미를 부정하고 회의하는 해체주의는 극단한 허무주의로 떨어진다. 이 허무주의는 자기 실존과 역사와 우주의 존재와 의미에 대한 회의로 나아간다. 이 허무주의의 뿌리는 니체가 선언한 바 신존재의 부정이다. 자아, 실존, 텍스트, 역사, 우주의 존재는 신의 창조, 로고스에 의한 신의 창조사상에 기초해 있다. 이 창조사상에 대한 부정은 모든 가치의 전복을 야기시키는 것이고 니체가 말한바 극단한 허무주의에 봉착한다.

#### 다섯째, 끝임없는 迷路에서 방황한다.

해체주의는 이러한 해체의 언어들이 “후기현대적 종교적 상상력을 위한 새로운 자료”가 되기를 원한다. 해체는 신 죽음의 해석학(hermeneutic of the death of God)이다.<sup>7)</sup>

해체주의는 의미들의 전체성에 해당하는 책의 세계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한다. 여기서 세계 바깥이란 천국이나 이데아 세계와 같은 곳이 아니다. 해체주의는 처음의 순수성을 찾는 고고학과 마지막의 목적을 찾는

6) Taylor, *op. cit.*, 173.

7) Taylor, *op. cit.*, 6.

유托피아적 목적론을 거부한다.

문자학의 논리에서 보면서 해체주의는 순수한 기원도 완성된 종말도 없다. 완전성이란 생명이 없는 죽음의 엄격성과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sup>8)</sup> 테일러는 성경 창세기 기사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낙원에는 언제나 뱀이 있다. 기원의 신화는 혼적을 지우기 위한 시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상실이 근원적인 것이 아니고 부차적인 것임을 말하려 한다”.<sup>9)</sup>

낙원이나 이데아 세계란 의미의 세계를 벗어난 일탈한 세계이며 아무 것도 아닌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란 순수부재의 세계이다. 끝없는 미로이다.

해체신학은 전통 신학의 개념들을 하나의 의미론적 현상으로 환원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의미도 하나의 일의적(一義的)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애매하며 끊임없이 표류하는 현상이다. 여기서 모든 목적과 구원은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다.

이 글은 목적과 종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오류와 방랑의 놀이이다. 그리하여 모든 전통적인 경전을 해체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해체는 결론적으로 비/신학의 해체의 과정까지도 부정하여 무로 들어간다. 해체주의 신학은 끊임없는 미로의 신학으로서 오류의 신학이다.

여섯째, 초월적 신에 대한 인격적 신앙만이 신학의 자기해체에서의 탈출구이다.

해체신학은 자기 스스로를 비/신학이라고 선언했듯이 신학의 자기 해체작업이다. 해체신학은 그 정신사적 창시자인 니체가 선언한 신의 죽음의 전제 위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신의 길은 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신의 길은 인간의식을 초월해 있다. 그는 인간의 투영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신의 길은 인간의 글 속에 해소되지 않는다. 신의 길은 인간의 글 보다 질

8) M. Taylor, *Errance, lecture de Derrida*, ed. du Cerf. 149.

9) M. Taylor, *Errance, lecture de derrida*, 118.

적 차원에서 높으시기 때문이다.

신의 주권성과 초월성이 확보됨으로써 비로소 인간의 실존이 확보된다. 인간은 그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이는 결단코 단순한 관계 개념이 아니다. 그는 인격이요 영원한 당신이신 하나님에 대면한 존재요 이웃에 대해 책임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존재가 확보됨으로써만 역사의 의미는 성립된다. 역사는 그 분의 주권적 섭리에 의하여 전개되고 최종의 목적적 구속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이다. 역사는 해체신학이 말하는 것처럼 처음과 끝이 없이 영구히 돌고 도는 순환이 아니다. 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그 종말을 가진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 여기서 역사의 의미는 비로소 드러난다. 역사과정에 일어난 모든 왜곡된 사건과 판결도 이때에는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판결에 의하여 그 진정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간섭과 섭리를 인정하는 곳에 허무주의의 진정한 극복이 있을 수 있다. 해체주의자들이 이러한 인간 삶의 실존적이고 가치적 기초를 부정할 때 그 자신의 실존과 가치를 부정하고 끊임없는 미로와 방랑의 시궁창에 전락하게 된다.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는 해체신학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자기의 실존과 가치의 기초를 궁정하는 사고의 전향, 즉 메타노이아를 경험해야 한다.

### III. 힉(John Hick)과 니터(Paul Knitter)의 종교다원주의 신학

종교다원주의는 힉(John Hick)과 니터(Paul Knitter)에 의하여 서구 신학의 자유주의 종교신학운동으로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힉은 기독교 내지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적 헌신의 중심이라는 전통적 종교관에 대한 “코페르니커스적 혁명”(Copernican revolution)을 선언했다. 그는 모든 종교적 신념과 실천의 중심에는 “하나의 신적 실재”(one divine reality)가 있으며 모든 주요 종교들은 이 실재에 대해 역사적으

로 문화적으로 제약된 인간의 반응이라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했다.<sup>10)</sup> 니터는 예수의 선교와 인격은 본래 왕국중심적이거나 신중심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르러 교회의 메시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기독론의 진화론적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는 “신 중심적 기독론”(theocentric christology)을 주장하면서 기독론적 언어를 “사랑언어”(love language)로서 해석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신비가 예수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다른 자에게도 열려있다고 주장한다.<sup>11)</sup>

첫째, 힌두교의 시바(Shiva), 유대교와 기독교의 야웨(Yahweh), 이스람교의 알라(Allah), 도교의 도(Tao), 힌두교의 브라만(Brahman), 불교의 니르바나(Nirvana)는 그 함축성(connotation)의 차이때문에 동일한 궁극적 실재 (the same ultimate reality)를 지시한다고 볼 수 없다.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모든 것의 주권자로서 창조자를 믿는다. 그러나 테라바다(Theravada) 불교는 종교적 궁극자를 창조자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인생은 윤회의 사슬에 갇혀 있으며 해방이란 이 사슬로부터의 해방으로 간주한다. 자니교(Jainism)는 명료히 무신론적이다. 힌두교의 많은 신자는 종교적 궁극자를 일원론적으로 니르구나 브라만(the nirguna Brahman)으로 본다. 이에 대해 어떤 힌두교인은 궁극자를 비슈누(Vishnu), 시바(Shiva), 크리슈나(Krishna)로 본다. 많은 불교도들은

10) John Hick, *God has Many Names*, Philadelphia:Westminster Press,1982.

Idem, *God and The Universe of Faiths*, chapter 9.Idem, *An Interpretation of Religion*, New Haven:Yale University Press,1988.ed., “The Myth of God Incarnate, London:SCM 1977, 이에 대한 필자의 비판글,상계서 68-73쪽.

11) Paul Knitter, *No Other Name? A Critical Survey of Christian Attitudes Toward the World Religions*, Marknoll,N.Y.:Orbis 1985. Idem, “Theocentirc Christology:Defended and Transcended”, in: *Journal of Ecumenical Studies* 24, Winter 1987. Idem, “Toward a Liberation Theology of Religions”,in: *The Myth of Christian Uniqueness*, ed., John Hick and Paul Knitter, Maryknoll,N.Y.: Orbis 1987. 이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글,상계서 73-76쪽을 참조하기바람.

종교적인 궁극자를 니르바나(Nirvana)로, 신도신자들(Shintoists)은 가미(Kamie)로 본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메시아로 보나, 유대인과 모슬렘은 이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간주한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구원을 말하나 정토(淨土)불교도(Pure Land Buddhist)는 구원이란 정토에서 다시 태어남(rebirth in the Pure Land)으로 보고, 아미다 봇다(Amida Buddha)를 믿음으로써 획득하며 선(禪) 불교(Zen Buddhism)는 구원이란 오로지 엄격한 자기규률을 통하여 획득한다고 본다. 기독교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간주하나 이슬람교는 코란(Koran)이 모하메트에게 구두로 전수된 알라의 말씀으로 간주한다.

둘째, 히은 각 종교의 궁극적 실재를 신화론적으로 보면서 종교적 불가지론(religious agnosticism)에 빠지고 있다. 히은 이 궁극적 실재를 “하나의 신적 실재”에 대한 이차적 체험내지 신화론적 표상으로 간주하나 각 종교의 신자들은 그들의 궁극적 실재를 사실적 실재로 보고 있다. 예컨데 힌두교인은 신들과 화육에 관한 베다의 이야기(the vedic stories of the gods and reincarnation)를 신화론아닌 종교적 실재에 관한 존재론적 주장으로 받아 들이고 있으며, 불교인은 환생의 관념(the idea of rebirth ), 봇다의 전생(前生)에 관한 이야기, 천상의 봇다에 관한 이야기를 신화론 아닌 종교적 실재에 관한 존재론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셋째, 히의 “하나의 종교적 실재”에 관한 주장은 각 종교전통이 갖는 종교적 궁극자의 고유한 개념에 관해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야웨(Yahweh)는 기독교인과 유대인에 대한 존재론적 궁극자요, 알라(Allah)는 모슬렘, 브라만(Brahman)은 힌두교도, 도(Tao)는 도교인, 마르마카야(Dharmakaya)는 마하야나(Mahayana) 불교도들에 대한 존재론적 궁극자이다. 이들 각 종교의 정통신자들은 자기들이 믿는 궁극자가 종교적 궁극자가 아니라 “실재에 대한 이차적인 현현”(a penultimate manifestation of the real)이라는 히의 견해에 반발한다. 예컨데 힌두교

인들은 브라만 보다 더 궁극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 반발한다.

넷째, 종교체험이란 “실재자체에 대한 직접적 체험이 아니라 인격자들 /비인격자들(personae/impersonae)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체험”이라는 힙의 견해는 각 종교의 신비주의 요소를 간과한 것이다. 예컨대, 아드바이타 베단타 힌두교(Advaita Vedanta Hinduism)는 현상계에 대한 저급한 지식을 말하는 아파라 비드야(apara vidya)와 브라만에 대한 높은 지식인 파라 비드야(para vidya)를 구분한다.

파라 비드야는 바라만의 실재적 본성에 대한 직접적이고 매개되지 아니한 직관적 지식이다. 선불교에서 사토리(satori, awakening)의 선(禪, Zen) 개념도 모든 이분성과 이원성을 초월하는 궁극적 실재에 대한 직접적 지식이다.

다섯째, 구속을 “자아중심으로부터 실재중심으로의 변형”으로 파악하는 힙의 구속개념은 각 종교의 고유한 전통을 간과한 형식적 공식(formal formula)에 불과하다.

아드바이타 베단타 힌두교도에겐 구속이란 브라만파의 본질적 동일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테라바다 불교도에게는 거룩한 여덟길을 조심스레 따르면서 환생으로부터 해방에 도달하는 것(attaining liberation from rebirth through carefully following the Noble Eightfold path)이며 조도 신슈 불교도(Jodo Shishu buddhist)에게는 네무부슈(nembutsu)의 암송을 통해서 아미타 불(Amida Buddha)에 응답하는 것이다. 따라서 힙이 주장하는 자기중심으로부터 실재중심으로의 전환이란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불가지론자들과 무신론자들의 도덕적 이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힙의 구속개념은 진정한 종교적 구속개념을 도덕주의적으로 축소시키기에 이른다.

여섯째, 서로 다른 종교적 신념이란 상호일치하기 보다는 동일한 실재를 표현하는 다른 방식이라고 설명하는 힙의 견해는 각 종교인들이 자기 종교의 궁극적 실재에 대한 진리주장과 상치된다. 예컨대 정통 이스람교도와 정통 기독교인의 예수 인격관을 서로 상치된다. 전자는 예수의 신

성을 거부하나 후자는 인정한다. 기독교인과 신도(神道)교인의 신적 실재관은 서로 상치된다. 전자는 신적 실재를 인격적으로 보나 후자는 비인격적으로 본다. 모슬렘과 불교도의 사후 삶의 견해는 서로 상치된다. 전자는 사후 삶을 인정하나 후자는 인정치 않는다. 여기서도 각 종교들이 주장하는 진리주장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고 각 종교의 추종자가 각 종교의 진리에 충실향 수록 이 갈등은 더욱 심하다.

### 맺음말

후기 현대주의가 제시하는 이 세가지 유형의 사조 - 신 이교주의, 해체주의, 종교다원주의 -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는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회복이요 하나님 말씀으로의 복귀다. 그럼으로써 현대인은 윤리적으로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그의 말씀인 성경은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기독교회와 신자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인간 삶의 실존적 기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가치판단을 위한 인간의 가치적 토대이다.